

[발표 3]

이혼: 가족치료의 실패인가?

박태영(숭실대)

I. 서론

가족치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의 하나는 젊은 신혼부부단계와 어린자녀를 둔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편들이 부모 특히, 어머니로부터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게 된다. 즉,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유지했던 부모와 자식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한다는 사고가 결혼한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태영, 2003).

본 연구는 시대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치료자를 내방한 사례이다. 남편은 매주 시댁을 방문하기를 원하였고, 시댁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귀가할 때 항상 부부싸움이 발생하였다. 시댁을 방문할 때 마다 부인은 화가 나서 무언으로 일관하였고, 부부싸움 후에는 친정이나 다른 집 또는 여관으로 가출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부인은 남편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사용하였고, 남편은 부인의 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어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남편은 퇴근 후 늦게 귀가하여 항상 TV를 보면서 대화를 하였는데, 부인은 남편의 그러한 의사소통방식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두 사람간의 가정문화에 따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의사소통방식이 한편으로는 기능적이거나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을 앞 둔 부부가 가족치료를 이혼을 막을 수 있는 최후수단으로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혼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치료에 대한 이론적 준거틀

1.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

본 사례에서 남편은 2세인 아들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39세에 미망인이 어머니에 대한 정을 정리를 못한 가운데 효자로서 매주 시댁을 방문하기를 원하였다. 한편, 부인 또한 장녀로서 친정부모님으로부터 분화가 안 되어 거의 매일 친정에 가서 부부관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부모님께 이야기하였다. 남편과 부인 모두 원가족으로부터 분리가 안 되어 시어머니와 친정부모님이 자녀들의 결혼생활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여 부부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치료자는 부부가 근본적으로 원가족과의 미분화로 인하여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았다.

2. MRI의 의사소통이론

MRI집단의 의사소통이론은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초점을 맞춘 단기치료접근법으로서 치료의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 또는 불평을 해결하는 것이다(Shoham et al., 1995). MRI집단은 문제란 생활주기를 통하여 개인이나 가족에 의하여 만나는 기회 혹은 변하는 환경으로부터 발전하게 된다고 본다. 변화에 대한 적응이 문제를 발전시키는 어려움으로 인식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MRI집단은 단순히 문제발달의 필요한 것으로 어려움을 잘못 다루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패와 결국에는 악순환을 유발시킬 똑같은 문제해결방식의 지속적인 적용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Watzlawick et al., 1974). 즉 MRI집단은 ‘문제’란 오랫동안 그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지속해 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한 문제행동들이 지속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그 문제행동들을 변화시키려고 행하여왔던 방법, 즉 사람들의 ‘시도된 해결’에 있다고 본다. 클라이언트는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속에서 곤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실이 없는 노력이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삶을 진척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치료자의 일차적인 임무는 새로운 또는 다른 행동을 기존의 행동과 대체하거나, 본래의 문제행동을 “하찮은 문제”로 재평가하는 것에 의하여 내담자에게 지금까지 시도해온 해결책을 알려 주는 것이다(Weakland, 1993).

III. 연구방법

1. 연구질문

첫째,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치료로 인한 부부간의 변화에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이혼을 결정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및 상담기간

연구대상으로는 부부와 친정어머니가 상담을 하였고, 1회는 친정어머니와 부인이 2회에는 남편, 3-4회는 부인, 5-7회는 부부, 8회는 부인, 9회는 남편, 10-11회는 부인, 12회는 부부, 13회는 친정어머니와 부인상담을 하였다. 상담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5개월 간 총 13회 상담을 진행하였다.

3.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부터 13회기 까지 나타나고 있는 반복되는 개념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의 방식과 전문가 집단에 의한 삼각화(triangulation)를 실시하였다. 개념들의 지속적인 비교의 방식은 1회부터 13회기까지 진행되는 상담 과정 속에서 반복되는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개념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Patton(2002)에 따르면, 삼각화(triangulation)에는 데이터의 삼각화, 조사자의 삼각화, 이론의 삼각화 그리고 방법론적인 삼각화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데이

터의 삼각화 방법으로서, 상담의 축어록과 치료자가 상담을 하면서 기록했던 메모를 참고로 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서 가족상담 축어록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부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과 이혼을 하게 된 요인들을 찾기 위하여 질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다양한 질적인 연구방법들 중 연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단일사례연구의 방식을 사용하며, 상담축어록과 상담 시에 기록된 메모를 원자료로 하여 개방코딩의 과정을 통해 연구 목적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다. 개방코딩으로 인하여 발견된 요인들을 Miles와 Huberman(1994)의 Matrix를 활용하여 부부갈등과 이혼에 영향을 미친 관계를 나타내고자 한다.

IV. 상담내용 분석

1.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부부간의 성장배경과 가족문화의 차이

- (1) 다른 성장배경
 - ① 남편의 대가족문화와 부인의 핵가족문화
 - ② 곱게 자란 부인
 - ③ 화목한 시댁식구
 - ④ TV에 대한 차이
 - ⑤ 힘들게 살았던 남편
 - ⑥ 잠자는 것이 최고인 남편
 - ⑦ 시댁과 친정의 경제적인 차이
 - ⑧ 부부간의 낭비에 대한 차이
 - ⑨ 부부간의 절약에 대한 차이

- (2) 가족문화의 차이
- (3) 부부간의 돈 지출에 대한 차이
- (4) 결혼 전 함 사건
- (5) 목욕 횟수에 대한 차이

2) 원가족으로부터의 미분화

- (1) 부인의 미분화
 - ① 결혼 전 장모의 지나친 간섭
 - ② 부인의 잦은 친정방문
 - ③ 간섭이 심했던 친정어머니

(2) 남편의 미분화

- ① 잦은 시댁방문
- ② 시댁을 챙기는 남편
- ③ 시어머니에게 고자질하는 남편

3) 장인·장모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1) 장인·장모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 ① 사위를 나무라는 장모
- ② 딸 편드는 장인·장모
- ③ 매일 전화하는 장모
- ④ 이혼하라는 장모

(2)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 ① 아들 편드는 시어머니

4) 차별하는 시어머니

5) 타협할 수 없는 규칙

(1) 남편의 양보할 수 없는 기준

- ① 시댁방문에 대한 기준
- ② 며느리로서의 도리

(2) 타협할 줄 모르는 부인

- ① 고집이 강한 부인
- ② 구속 받기 싫어하는 부인

6) 부부와 시어머니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1) 남편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 ① 일방적으로 참는 방식
- ② 남편의 폭력성
- ③ 빠지는 남편
- ④ 부인의 입장을 대변 못해주는 남편
- ⑤ 비아냥거리는 남편의 의사소통방식
- ⑥ 남편의 욕설
- ⑦ 남편이 말을 안 함
- ⑧ 남편의 외박
- ⑨ TV와 다른 데를 보면서 말을 하는 남편
- ⑩ 포르노를 보고 부인과 성관계를 안 함
- ⑪ 고부관계를 악화시키는 남편

⑫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남편

⑬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남편

“신랑은 얘기를 안 하는 거지요. 불만은 있는데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속으로 삭히고 웬만한 것 아니면 얘기를 안 하는 거지요. 기본적인 얘기 얘기나 밥 먹었니 같은 것만 하지요. 나는 앉아서 대화로 다 풀어버리고 싶은데 신랑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파서 그런지 복잡해서 그런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괜찮다 불만 없다 그런 식으로 일축해 버리거든요. 대화를 깊이 못하고 단절 되요.” (6회: 부인)

(2) 부인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① 부인의 히스테리적인 표현방식

② 부인의 욕설

③ 부인의 폭력

④ 부인의 가출

⑤ 부인이 말을 안 함

(3) 시어머니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① 화를 내는 의사소통방식

② 욕하는 시어머니

③ 일방적인 의사소통방식

④ 질책하는 시어머니

(4)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부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7) 미성숙한(철없는) 부인

8) 장인·장모의 역기능적인 부부관계

9) 시댁식구로부터 왕따

10)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과 애정이 사라져 가고 있음

(1)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짐

(2) 부인에 대한 회의감

11) 부인과 자녀의 증상

(1) 부인의 증상

① 시댁으로 인한 화병

② 우울하고 외로움

(2) 자녀의 증상

2. 결혼을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이혼을 고려함

- (1) 부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생각
- (2) 남편의 이혼에 대한 고려

3. 치료로 인한 부부간의 변화

1) 부부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

- (1) 치료자의 재명명과 부인의 남편의 TV 보는 것에 대한 이해

2) 부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통찰

- (1) 남편이 사용하는 우회적인 표현에 대한 인식

3) 부부간의 솔직한 표현방식

4) 시대방문에 대한 남편의 변화

- (1) 시대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는 남편
- (2) 시대방문 횟수에 대한 변화
- (3) 남편의 양보

5)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부부

- (1) 부인의 노력
- (2) 남편의 노력

6) 믿어 달라고 요구하는 남편

7) 변화하고 있는 부부간의 의사소통방식

- (1) 부인의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 (2) 남편의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 (3) 부부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 (4) 변화하고 있는 부부관계

8) 자신에 대한 통찰

9) 줄어든 부부싸움

10) 이혼 생각에 대한 변화

- (1) 이혼 생각에 대한 남편의 변화
- (2) 이혼 생각에 대한 부인의 변화

4.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식어 가는 부부관계

2) 남처럼 느껴지는 부부

3) 지속되고 있는 부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 (1) 부인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남편의 대화방식
- (2) 쏘아 붙이는 부인의 표현방식
- (3) 일방적으로 내뱉는 남편의 표현방식
- (4) 부인보다 형수를 편드는 남편의 표현방식
- (5) 부인을 무시하는 남편의 표현방식
- (6) 벽과 대화하는 느낌을 받는 남편
- (7) 전형적인 부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5) 시대으로부터의 남편의 미분화

- (1) 시대방문에 대한 남편의 요구
- (2) 부인 보다 시댁을 챙기는 남편
- (3) 형수와 화해하라는 부인에 대한 남편의 압력
- (4)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
- (5) 자기 가정보다 시어머니를 택하는 남편

6) 양분화된 사고(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의 남편

7) 서로 바뀌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부

- (1) 변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남편
- (2) 변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부인

8) 남편의 폭력

“저번에는 비디오 때문에 싸우게 됐는데 오빠가 의자를 집어던졌어요.” (11회: 부인)

“근데 신랑도 난폭한 데가 있어요. 의자도 다 부수고 유리창도 다 깨뜨리고 문짝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남편은 욕하는 성질이 있어서.” (13회: 부인)

9) 이혼하려는 부부

- (1) 이혼하려는 남편
- (2) 이혼하려는 부인

10) 이혼을 부채질하는 시어머니

- (1)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질책

(2) 이혼하라는 시어머니의 요구

11) 사위에 대한 장모의 부정적인 시각과 이혼에 대한 고려

12) 이혼에 대한 결정

(1) 부인의 이혼에 대한 결정

(2) 남편의 이혼에 대한 결정

V. 결론

지금까지 총 13회 상담에 관한 축어록을 중심으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 가족치료로 인한 부부간의 변화에 미친 요인, 그리고 이혼을 결정하는데 미친 요인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부부가 성장한 가족배경과 그로 인한 가족문화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타협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부재, 마지막으로 원가족과의 미분화가 궁극적으로 부부갈등을 유발시켜 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가족상담을 통하여 치료자와 함께 부부는 자신들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고 의사소통의 변화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두 사람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힘들었다. 특히, 남편의 경우는 홀어머니와 원가족에 대한 분리하기 어려움 또한 부인의 경우는 친정의 문화와 너무나 다른 시댁의 문화, 그리고 남편의 대화방식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었다. 한편, 남편 또한 미성숙한 부인의 대응방식으로 매번 시댁방문 문제로 부인과 충돌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부간의 충돌이 의사소통의 변화 하나만으로는 부부가 재결합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부부간의 이혼에는 시어머니와 시댁식구들, 그리고 장모의 부정적인 역할이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가족문제를 다룰 때, 근본적으로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이 원가족과의 분리를 고려하면서, 문제를 시도했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박태영 (2003).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 Shoham, V., Rohrbaugh, M., & Patterson, J. (1995). Problem-and solutions-focused couple Therapies: The MRI and Milwaukee models. In N. S. Jacobson., & A. S. Gurman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pp. 142-16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atzlawick, P., Weakland, J., & Fisch, R. (1974). *Change: problems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W. W. Norton.
- Weakland, J. H. (1993). Conversation-but what kind? In S. Gilligan., & R. Price (Eds.), *Therapeutic conversations* (pp. 136-145). New York : Norton.